

무궁화동산 청소년 수련의 집 Youth Training Center of Mugunghwa Hill

최낙진 / (주)사간건축사사무소
by Choi Rak-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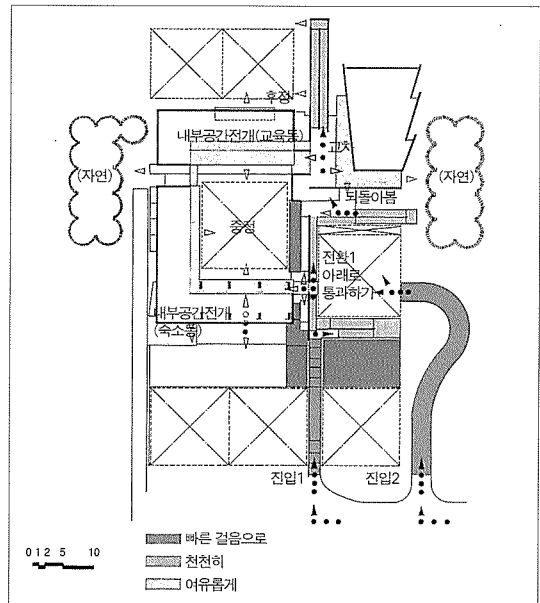
1993년 가을, 청평댐을 지나 강원도 홍천의 모곡 유원지로 가는 길은 시골스러운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참으로 정겹고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였다. 그곳은 청소년 수련원 부지로 가는 길이었다.

설계사무소를 등록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처음으로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를 대하게 되었으니 처녀작인 셈이었다. 그러나 마음 설레고 의욕이 앞섰다. 대지조건이나 상황이 궁금하면 다시 가고 싶었고, 갈 때마다 가슴 벅찬 새로운 기분을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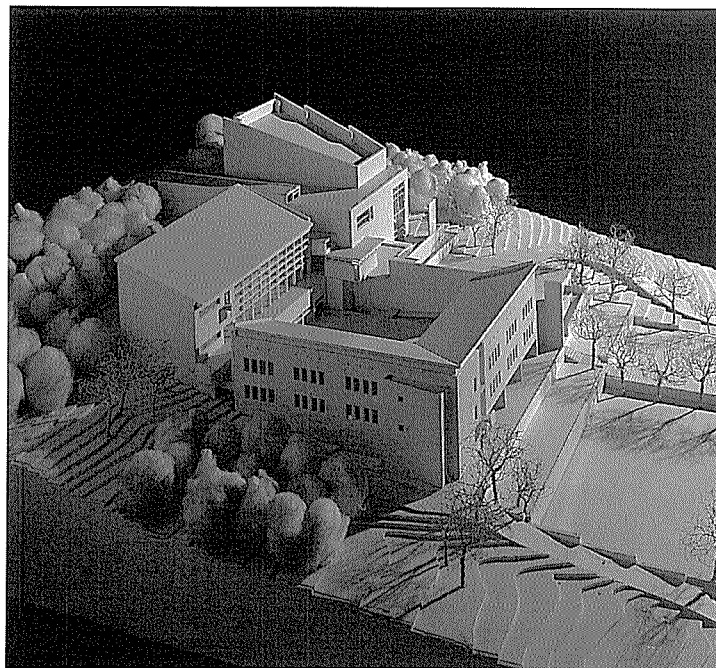
직원으로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몸가짐을 스스로 느낀 셈이다. 사실 처음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실적, 사무실 규모, 경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프로젝트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당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던 친구의 활동에 의해 프로젝트를 대하게 되었지만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교회프로젝트 몇 개가 성사되지 않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이는 친구의 대인관계와 신앙심에 의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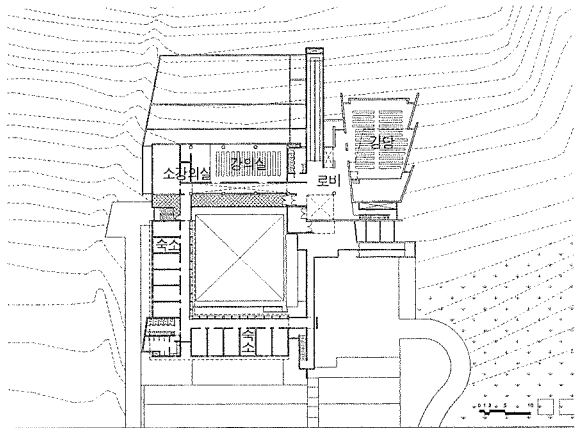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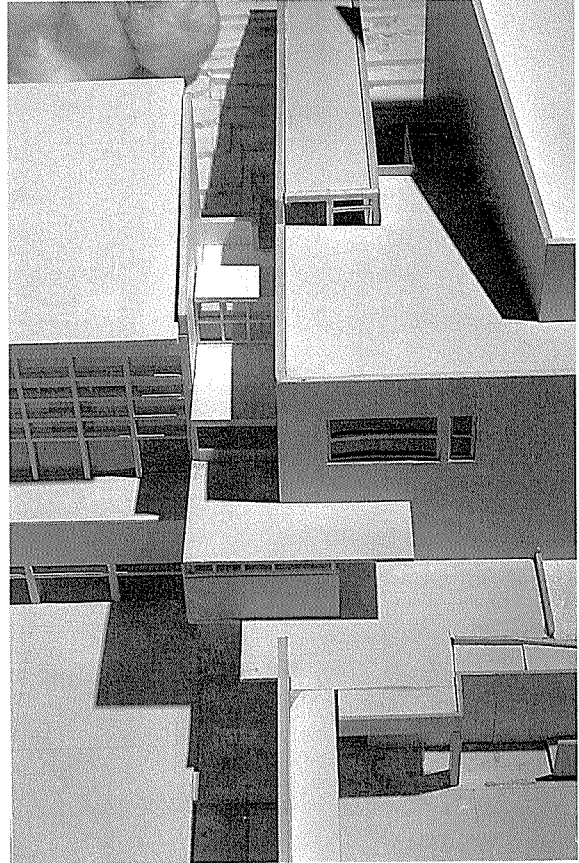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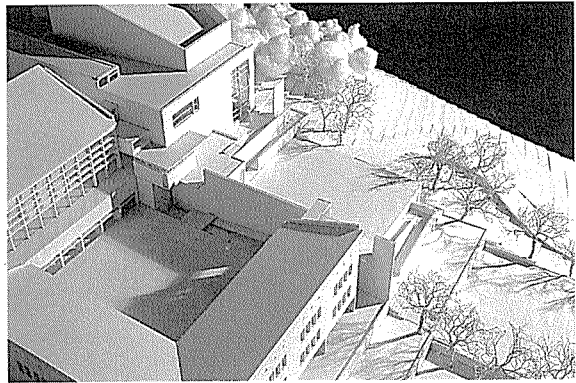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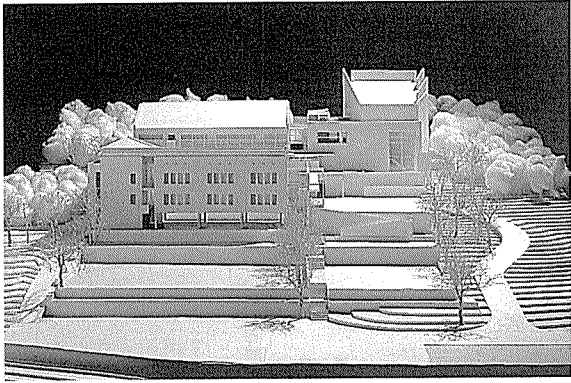
이 수련원의 실제적 수련 대상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신도라고 해서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이상 신앙심을 지니고 있는 신도들이었다. 그래서 수련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은 정신적으로 일상 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요구하였고 오직 수련과정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교육적 프로그램은 건축구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육과정 동안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한적한 산기슭에 놓여 있는 대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부지는 모곡 유원지 조금 못 미쳐서 약 2km 정도 외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면부에는 병풍처럼 펼쳐 있는 산봉우리가 이어졌고, 그곳에는 형제봉이라는 바위가 정상에 이르렀다. 산으로 둘러 싸여 일조시간은 짧았으며 주변환경이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을 느끼게 하였다.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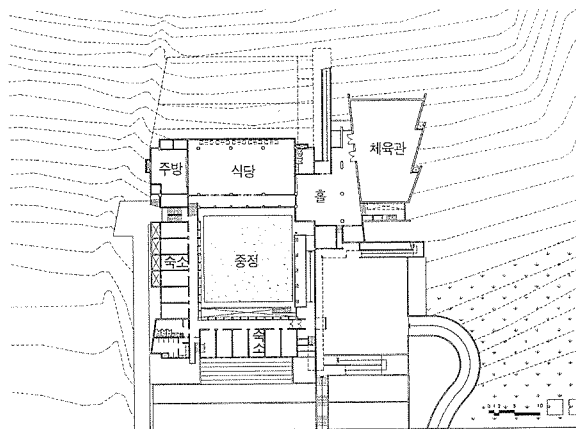


공간개념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쪽으로 경사진면(북향)을 이루는 대지를 서성거리다보면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함도 있어 이중적 감성을 지니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감성이 다를 수 있기에 몇차례 방문하여 보았으나 거의 같은 분위기였다. 교육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절제된 행위와 대지를 비롯한 주변환경의 이미지를 적절히 조절하면 공간 성격이 분명해지고 명쾌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간이 건축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움직임과 시간성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자극되어진다.

적절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 그러한 자극을 촉발시키고, 그속에서 수련하게 될 인간의 심성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사물이나 공간을 인식하고 나타나는 내적 심리적 반응은 인간의 보편적 진리로서 공유하지만 문화와 교육, 관습에 의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근대건축의 영향을 받고 설계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간과하여 소홀히 하거나 조금은 왜곡된 시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근대건축이 역사와의 단절을 꺾고 단순성을 추구하였고 현대 서구건축이 새로운 철학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서구건축가들의 작품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히 혁명적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건축도 역사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

고 시간의 궤적속에서도 동시대성을 느끼게 하는 많은 건축어휘를 보게 된다. 이는 미학 또는 건축 이론의 학문체계의 연속성과 문화의 지속된 맥락과 더불어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감흥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럽의 수도원, 사찰건축, 상류주택 등 많은 선례들이 이미지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물을 보는 방법론, 공간 인식에 대한 문제, 자연관, 그리고 그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심리적 반응 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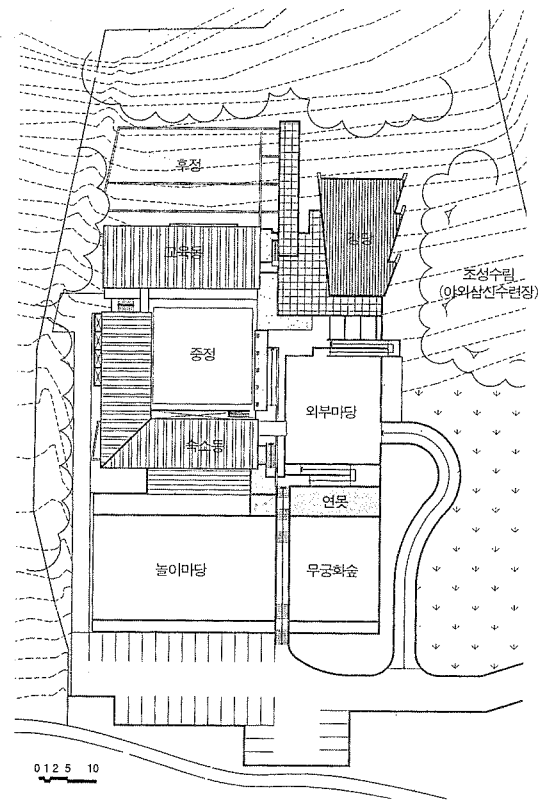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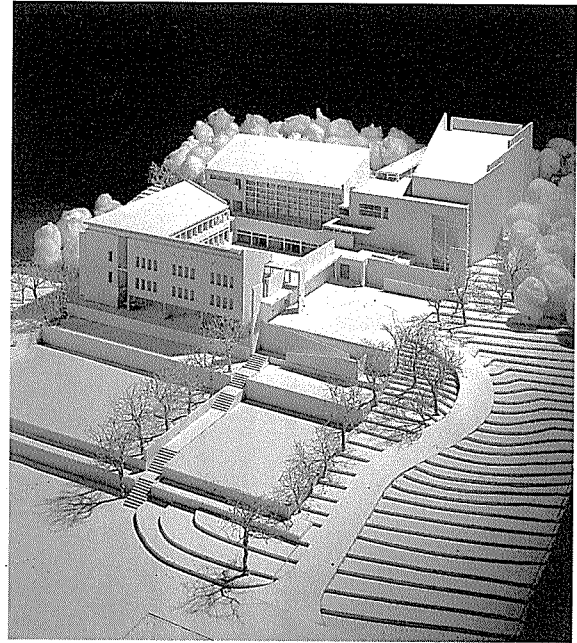
어느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처음에 기독교로서의 종교적 이미지가 요구되었는데 본인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결과를 종교인으로서 또한 건축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외였다. 기독교 건축과 불교 건축 이야기, 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선비정신 이야기 등이 스스럼없이 서로 논의 되었고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건축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었다.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 있다. 설계를 의뢰했을 때는 목회자로서 많은 의도와 주문이 있게 마련이고 많은 신도(위원회)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의지가 더욱 고맙게 느껴지곤 하였다.

첫 프로젝트라서 애착이 많지만,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미묘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 한적했던 흥취는 길은 음식점, 러브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변화하였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 수련원은 예산의 문제로 변질, 생략되면서 의도와는 달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흘러 완성될지 미지수이다.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설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 많은 애정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과 설계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작품이 된 셈이다.



배치도

